

선이란 정이며 ‘물려줌에 심이 없음’이다

<48> 원광도(袁宏道) 거사

명대의 대표적인 거사인 탁오(卓午) 이지(李贄)는 쇠락해가는 만명(晩明)의 불교에 새로운 거사불교의 흐름을 일으켰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사대부 거사인 원광도(袁宏道: 1568~1610)이다.

원광도 거사는 대대로 불교를 신봉하던 집안 출신이었다. 그의 형인 종도(宗道: 1560~1600, 자가 백수(伯修), 호가 향광거사(香光居士)와 동생인 중도(仲道: 1570~1623, 자(字)가 소수(小修), 호가 상생거사(上生居士)) 역시 독실한 거사이다. <거사전>에 따르면, 그들 삼형제의 모친 공(龔)씨 역시 독실한 불자로서 늘 <금강경>을 독송했다. 어느 날 커다란 거미가 대들보로부터 내려와 경전 주변을 돌다가 갑자기 경전을 향해 무릎을 꿇고 절을 하듯이 었드렸다. 그러자 모친이 “너도 경전을 듣고 싶어 왔구나”라고 하며 경전을 독송해 주었다. “육여계(六如偈: 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應作如是觀)”에 이르자 거미가 가만히 움직이지 마지 예를 표하는 것과 같았고, 독송을 마치니 이미 죽어있었다. 모친은 거미를 감실(龕室)에 옮겨 작은 탑을 지어 썼다.(<거사전> 권46) 이후 삼형제가 태어났는데, 모두 문장으로 이름을 날려 ‘삼원(三袁)’으로 불렸다. 문학에서는 그들을 ‘공안파(公安派)’라고 했다. ‘공안파’는 원광

에 상세한 전기와 실려 있다.

그 문헌에 따르면, 거사의 자는 중랑(仲郎)이고, 호는 석두거사(石頭居士) 혹은 육휴(六休)로서 공안(公安: 현재 호북성湖北省에 속함) 사람이다. 만력(萬曆) 20년(1592)에 진사에 급제해 오강(吳江)의 지현(知縣)에 임명됐는데, 행정의 처리가 매우 공평하고 뛰어난 백성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다. 그 후에 국자조교(國子助教), 고공원의랑(考功員外郎)을 거쳐 예부주사(禮部主事)의 관직에 임명됐지만, 얼마 후 병을 얻어 사임하고 귀향했다.

거사는 특히 선학(禪學)을 좋아했다. 여기에는 형인 원중도 거사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종도 거사가 북경에서 관직을 역임할 때, 거사는 형의 소개로 양명학의 태주학파(泰州學派)에 속한 초공(焦竑), 구여직(瞿汝稷) 등을 만나 함께 돈오(頓悟)의 종지를 논했다. 그 당시의 정황을 <공안현지>에 실린 말형인 원중도 거사의 전기에는 “중랑과 소수가 모두 물어 배웠는데, 선생(종도)은 심성(心性)의 확설을 가르쳤고 서로 논의하며 검증했다”라고 적어 삼형제가 조사선의 탐구에 심취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거사의 진정한 스승은 이지 거사였다.

<공안현지>에 실린 거사의 전기에는 만력 19년



그림 · 김홍인

거사의 선학은 바로 ‘심성(心性)’의 두 글자로 귀결시킬 수 있다. ‘직서심성(直指心性)’, ‘명심견성(明心見性)’ 등을 주장해 ‘천진자연(天真自然)’을 드러내는 특색을 보인다. 거사는 “성품(性)은 편안하여 억지로 할 수 없고, 성품을 따라 행하는 이를 진인(真人)이라고 한다”(<가설재집> 권15) 라고 했다. 이렇게 ‘심성’으로 귀결시키는 것은 이미 당대(唐代)로부터 출현한 심성론에서의 불교와 유가(儒家)가 융합한 결과이다. 또한 당시에 유행한 양명학파도 무관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조사선에 매료되었던 거사는 점차로 정토법문으로 관심을 전환했다. 거사가 정토로 관심을 돌린 이유에 대해 형인 종도 거사는 “조사선을 수습해 세속적인 정이 감소해 진로(塵勞: 세속에 얽매임)에 빠져들지 않았지만, 사대부의 병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여 자연을 벗 삼아 <이소(離騷)>와 <이아(爾雅)>의 업(業)에 빠져 탐닉하며 방종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서방합론(西方合論)· 서(序)>)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서 거사가 정토에 관심을 돌린 원인을 ‘방종한 마음’에 대한 대처법을 정토법문으로부터 찾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관직을 사임할 정도로 평생을 병약하게 살았던 거사도 거사가 정토에 귀의했던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토법문에 관심을 가진 지 몇 년 후인 만력 27년(1599)에 거사는 <서방합론> 10권(<대정장> 47책 所收)을 찬술했고, 그의 형이 서문을 썼다. 이 책의 기본적인 사상은 “부사의제일(不思議第一義)을 종(宗)으로 삼고, 깨달음(悟)으로 이끌어 줌(導)으로 삼는다”(<서방합론· 서>)라고 평하는 종도 거사의 서문과 같이 선적인 깨달음을 정토수행의 길잡이로 삼고 있다. 이로부터 거사는 정토법문으로 관심을 돌렸지만, 결코 돈오의 선지(禪旨)를 포기하지 않고 있음이 짐작된다. 다시 말해 선과 정토를 결합시키는 ‘선정일치(禪淨一致)’의 틀을 보였는데, 이는 송대(宋代) 이래로 출현한 대체적인 흐름이었다. 특히 거사는 ‘영명(永明) 선사’는 이미 달마(達磨)가 실한 직지(直指)의 선을 깨달았고, 또한 능히 극락상품(極樂上品)에 몸이 이르렀으니, 이로써 선(禪)하는 이들이 정에 집착함을 풀여줬고, 이로써 말법시대에서 신심(信心)을 갖도록 했으니, 참으로 종(宗)의 가르침에 공이 크다”(<서방합론> 권2)이라고 말해 영명연수 선사가 ‘선정일치’를 제창한 것을 극도로 찬탄했다. 거사의 작품으로는 <서방합론> 이외에 <가설재집(阿雪齋集)> 14권, <산호림(珊瑚林)> 1권, <금설편(金屑編)> 1권, <해탈집(解脫集)> 5권 등이 있다.

명대 불교의 쇠퇴기에서 양명학의 유행과 함께 다시금 거사불교가 유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탁오 이지와 원광도 거사의 역할이 가장 두드러졌다. 특히 원광도 거사의 ‘선정일치’의 제창은 이후 정토와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심원한 영향을 미쳤다.

■ 김진무 (중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오랫동안 조사선에 매료... 자연 벗 삼아 정토로 전환

‘서방합론’ ‘가설재집’ ‘산호림’ ‘금설편’ 등 찬술

도 거사의 유명한 “오직 성령(性靈)을 서술하되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자기의 가슴 속으로부터 흘러나지 않는다면 붓을 들지 않는다(獨抒性靈 不抒格套 非從自己胸臆中流出 不肯下筆)”라는 말과 같이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을 중시해, 조사선 선리(禪理)와 탁오 이지 거사의 ‘동심설(童心說)’을 바탕으로 전개된 문학이론이다. 이러한 공안파는 우리의 문화, 특히 허균·박지원·박세당 등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원세 삼형제가 모두 뛰어난 문인이면서 거사로 활약함에 따라 <거사전> 권46 한권 전체에는 ‘원백수·중랑·소수전(袁伯修·中郎·小修傳)’의 제목으로 삼형제의 전기와 게재돼 있다. 그러나 역시 가장 유명한 이는 바로 원광도 거사이다. 그에 따라 청대(清代)의 팽희숙(彭希濬)의 <정토성현록(淨土聖賢錄)> 권7과 거사의 고향인 <공안현지(公安縣志)> 등

(1591) 거사가 “용호(龍湖)에서 이노(李老: 이지 거사)가 교외(敎外)의 종지를 그윽이 깨달았다는 소식을 듣고서 달려가 잠문하고 크게 계합했다... 그곳에서 3개월을 머물면서 헤어지기 아쉬워하다가 이지 거사가 무창(武昌)까지 배웅해 이별했다”라고 기술했다. 거사가 이지 거사를 만난 것은 진사에 급제하기 한해 전인 24세였고, 이지 거사의 처소에서 머물렀던 3개월 동안에 거사는 커다란 진보가 있었으며, 이지 거사로부터 ‘인가’를 받은 것이 짐작된다. 이는 거사의 동생이 쓴 <중랑선생행장(中郎先生行狀)>에서 “선생은 용호(이지 거사를 지칭)를 뵈자 큰 기러기가 순풍을 만난듯했으며 큰물고기를 개울에 풀어놓은 듯했다. 능히 마음을 스승으로 삼았고, 마음에 휘둘리지 않았으며, 능히 고인(古人)을 다투었고, 고인들에게 꼬달리지 않았다. 하는 말마다 하나하나 가슴속으로부터 흘러나와 하늘을 덮고 땅을 덮

기를 급류를 끊는 것과 같았고, 우레가 소요함을 깨우는 듯했다.”(<가설재집(阿雪齋集)> 권9)이라고 당시의 상황을 표현한 구절로도 확인된다.

2년 후에 거사는 그 형과 함께 다시 용호를 찾았다. 당시 이지 거사는 “식력(識力)이나 답력(體力)이 모두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으로 오직 거사만이 선종의 “임미일로(入微一略)”를 가히 감당할 수 있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공안현지> <원광도전> 이후에 거사는 초공, 도망령(陶望齡), 관지도(管志道) 등 수많은 사대부 거사뿐만 아니라 지불원(芝佛院) 무념(無念) 등 선사와도 왕래했다.

거사는 ‘선(禪)’에 대한 해석이 독특했다. “선이란 정(定)이며, 또한 ‘물려줌에 심이 없음(禪代不息)’이라는 뜻이 있다. 이미 ‘선’이라고 했다면, 바로 ‘변천해 없어짐(遷流無已)’이요, ‘변하고 움직여 항상 하지 않음(變動不常)’이니, 어찌 정(定)의 흔적이 있

겠는가? 선을 배우는 자가 어찌 정법(定法)이 있어 가히 지키겠는가? 또한 선에는 물려남과 나아감도 있을 수 없으며, 소요함도 소란스러움도 있을 수 없다.”(<가설재집(阿雪齋集)> 권5) 거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선에 ‘물려주어 심이 없음’, ‘변하고 움직여 항상 하지 않음’ 등의 의미가 있으므로, 선에 있어서 고정된 내용이나 구체적인 형식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의 선학이 ‘좌선(坐禪)’과 ‘선정(禪定)’ 등의 형식적인 것을 중시하는 것에 대한 반성적 사유로부터 나온 견해로 해석된다. 특히 거사는 마조(馬祖) 문하의 임제선(臨濟禪)을 극도로 찬탄하고, 거사의 문집 도처에 임제의 선어(禪語)들을 인용했다. 거사가 보는 가장 이상적인 선은 바로 당말(唐末)·오대(五代)에 흥성했던 조사선으로 설정하고, 당시의 선학을 상당히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바로 탁오 이지 거사의 영향이었다.